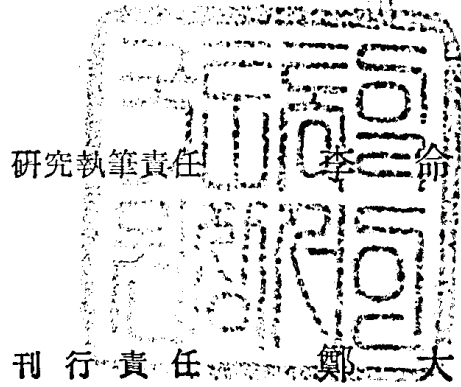


3434.4  
348.2801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研究

# 駐韓美地上軍 撤收後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研究執筆責任 李 命 植 (慶北大學校)  
 刊行責任 鄭 大 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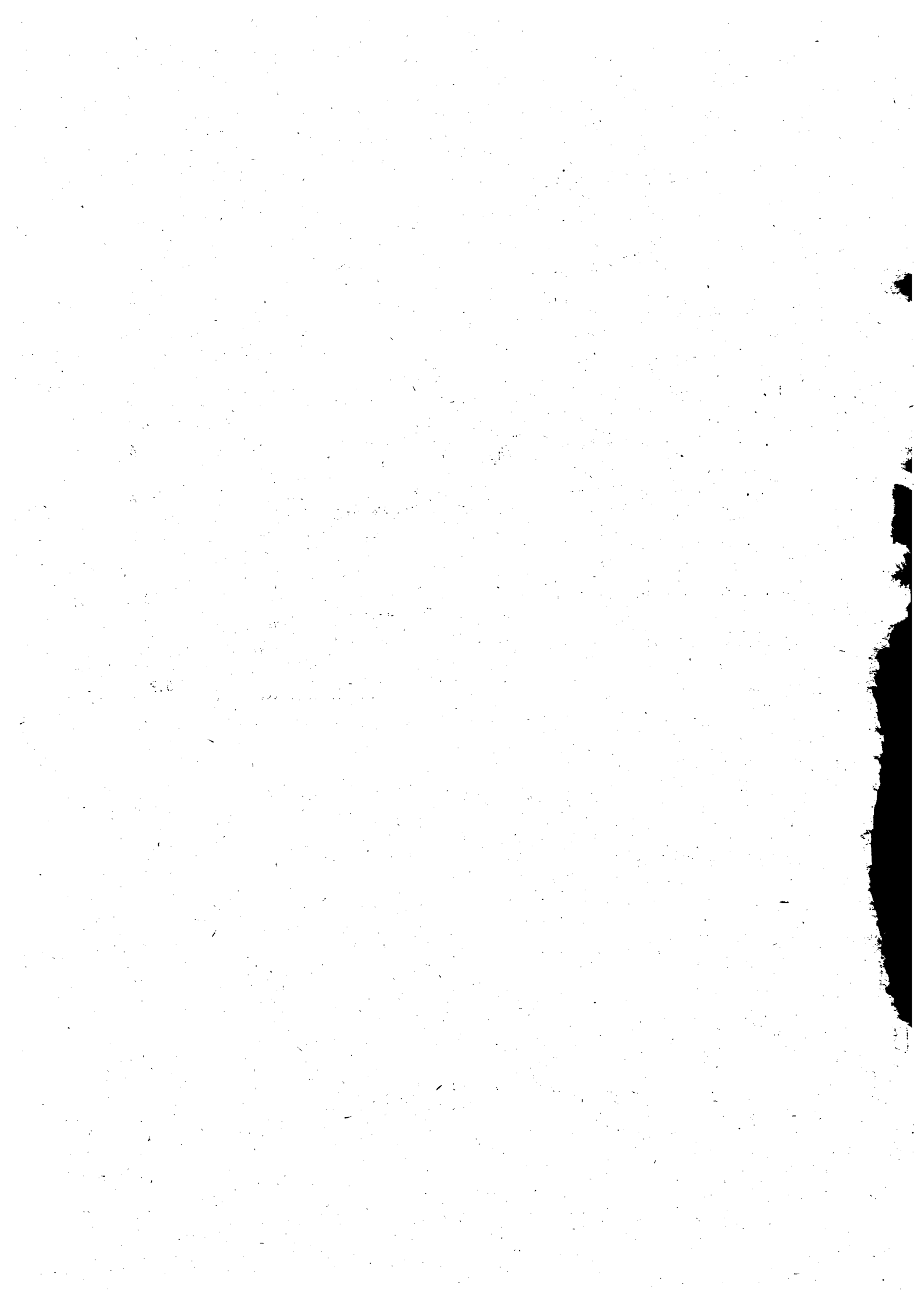
{ 주한미군  
 소련대한정책  
 주한미군영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I. 序 論 .....	3
II.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分析을 위한 前提 .....	6
1.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와의 並存論理 .....	6
2. 蘇聯의 東北亞에 對한 基本關心 .....	9
III. 蘇聯의 對韓半島態度 .....	19
IV. 蘇聯의 對韓態度推理와 對蘇接近上의 問題點과 展望 .....	32
V. 結 論 .....	52



## 論 文 要 旨

1. 論文題目：「駐韓美地上軍 撤収後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2. 論文의 目的：

本 論文은 韓國의 對蘇接近 可能性을 摸索하기 위한 “政策資料”에 所要되는 研究報告書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주어진 命題에 따라 駐韓美地上軍 撤収計劃 發表 以後 韓半島를 둘러싼 有關 國中の 一國인 蘇聯의 對韓半島 關心事의 底意를 규명해 보고, 그 一環으로서 惹起될 이슈를 分析·檢討하여 그것이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과, 特別히 蘇聯·北傀와의 關係變化 動因 및 그로 因해 發生될지도 모를 蘇·韓國과의 關聯性 問題等을 想定시켜 今後 展開될 對蘇接近 可能性에 대한 假說 檢討라는 次元으로까지 主題의 意味를 擴大시켜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3. 研究內容：

本 研究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側面에 力點을 두고 있다.

1) 蘇聯의 對韓半島態度 내지는 政策分析을 위한 基本前提로서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를 상정시켜 이같은 目標의 特徵과 相關關係를 吟味해 보고, 그것이 南·北韓 關係에 投影될 때 나타

날 수 있는 現實的인 問題點을 分析해 보았다.

2) 蘇聯의 아시아에 대한 基本關心과 多樣한 戰略을 分析해 봄으로서,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基本態도와 外的環境의 變化動因에 따른 流動性을 검토하였다. 同分析은 主로 蘇聯이 推進하고 있는 南進政策이라는 政策的類型에 依한 多岐한 戰略과 戰術的인 次元에 서의 政策實施內容과 그 展望에 대해 置重했다.

3) 蘇聯의 對韓半島態度 分析에 있어서는 主로 南·北對話 開始를 前後하여 蘇聯이 事實上 韓半島問題에 대해 어떠한 姿勢로 臨하고 있으며 特히 南北對話 推進의 肯定的 反應이 뜻하는 底意 分析과, 그에 따른 蘇聯의 對韓半島態도의 伸縮性을 검토하였다.

4) 蘇聯의 對韓態度 推理와 對蘇接近 可能性을 摸索하기 위한 外交上의 問題點과 展望을 分析 試圖했다.

現時點에서 蘇聯의 公式的인 對韓態度表明이 없는 限, 同問題는 推理 내지는 假定的인 問題의 想定인 同時에 對蘇接近策도 하나의 試案에 不過하다. 그러나 韓國政府가 이미 6.23 宣言을 통해 共産黨諸國에게도 門戶開放을 하겠다는 政策的 原則이 發表된 以上 韓·蘇관계의 問題點과 展望檢討는 결코 無意味한 것은 아니다. 따

라서 本章에서는 主로 어떠한 与件이 对蘇接近, 또는 蘇聯의 对韓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나를 分析해 보았고 그에 따른 問題点이  
무엇이냐를 지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本研究가 政策資料에 이바지할 性格의 報告書이기 때  
문에 韓國政府가 对蘇外交를 推進시킴에 있어 格別히 留意해야 할  
点이 무엇인가를 言及해 두었다.





## I . 序 論

### 問題의 焦点과 提起

카터行政府의 出帆과 함께 表面化된 駐韓美地上軍의 撤収問題는 그 動機와 目的이 어디에 있던간에 韓半島의 새力學關係에 대한 再檢討를 必要케 하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韓半島를 둘러싼 有閔國 즉 美·蘇·中共·日등의 對韓半島戰略은 基本的으로는 긴장 완화 내지는 現狀維持의 次元을 肯定하고 있으나, 有閔國 相互作用에서 發生하는 變化動因과 그것이 南·北韓間에 미치는 影響은 적지 않다고 看做되는바 向後 有閔國의 態度 變化는 直接·間接的으로 韓國의 安全保障과 函數關係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本主題와 直結되고 있는 北方三角關係에서 政治的·軍事的 내지는 外交的으로 主導的 位置와 役割을 하고 있는 蘇聯의 影響力이 점차적으로 增大되고 있으며, 特히 베트남의 共產化에 힘 입은 소련의 立場은 傳統的인 南進政策의 目的達成을 위한 多岐한 策略政策 및 戰略을 구사하려는 努力이 懸저해지고 있는 바, 이같은 소련의 勢力圈 膨脹 意圖는 美國이나 中共의 움직임 如何에 따라 그 限界性이 露出되리라고 予想되나 現時點에서 본 狀況은 多分히

蘇聯에게 有利한 動機賦与라는 点を 想定시킬 수 있다고 分析된다.

세제는 韓半島의 軍事均衡과 關聯되는 問題로서 南·北韓間의 긴장고조 傾向이다. 韓半島의 美地上軍撤収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東北亞의 勢力均衡에 큰 틈을 내게하는 結果가 된다. 美軍은 지난 30餘年間 蘇-中共-北傀로 뭉쳐지는 北方共產勢力에 맞서 韓國과 함께 이를 견제해 온 民主勢力的 中核을 이루어 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터行政府가 美軍撤収에 따른 事前措置의 강구없이 予定하고 있는 타임·테이블에 依해 計劃을 집행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南·北韓間의 軍事的 均衡에 차질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北方三角關係에서 中·蘇는 對立狀態에 있지만 北傀의 對中共 및 對蘇關係는 各己 友好關係에 있으며, 또한 各種 支援 惠沢을 받을 수 있다는 点에서도 南方三角關係 속에 包含되고 있는 韓國의 立場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은 判斷일 것이다.

물론 南·北韓의 軍事的인 不均衡으로 因한 韓半島의 긴장고조는 有關國에도 直接的인 관심사가 될 것이므로 中·蘇의 對北傀 支援 樣相도 총전과 같은 積極性을 띠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狀況變化의 假定은 南方三角關係國인 美·日 特히 美國의 對蘇 및 對中共 交涉 如何에 따라 그 樣相이 달라질 것이다.

例컨대 美國은 이미 蘇·中共에 對韓公約 確固 通告를 한 바 있지만 소련이나 中共側의 反應에서 이렇다할 肯定的인 根拠를 포착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카터行政府는 駐韓美軍撤収에 따라 韓半島의 軍事均衡에 動搖가 없도록 하기 위해 北傀에 대해 韓國에 대한 軍事挑發을 하지 않도록 中共과 蘇聯에 仲裁를 의뢰 했는데 兩國은 복잡한 問題라는 理由로 이提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実情<sup>1)</sup>을 미루어 보아 中共이나 蘇聯의 對北傀 態度는 內容的으로는 予測키 힘든, 曲折이 있을지도 모른다.

本研究는 주어진 命題에 따라 美軍撤収計劃 發表 以後 韓半島를 둘러싼 有關係國中の 一國인 蘇聯의 對韓半島關心事의 底意를 규명해 보고, 그 一環으로서 惹起될 이슈를 分析, 檢討하여 그것이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과, 특히 蘇·北傀와의 關係變化 動因 및 그로 因해 發生될지도 모를 蘇·韓國과의 關聯性 問題등을 想定시켜 今後에 展開될 對蘇接近 可能性에 대한 假說 檢討라는 次元으로 까지 主題의 意味를 擴大시켜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 II. 소련의 對韓半島政策 分析을 위한 前提

### - 그 理論과 實際 -

#### 1.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와의 並存論理

蘇聯의 對亞細亞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對韓半島政策을 檢討함에 있어서 우선 考慮되어야 할 問題意識은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이른바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와의 並存論理의 本質이 무엇이며, 그것이 韓半島政策에 投入될 樣相과 그로 因해 惹起될 問題點들을 索出해 보는 것이다. 루빈스타인 教授의 表現대로 革命을 前提로 하는 政治的인 浸透戰略은 소비에트外交의 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이같은 침투類型은 스탈린以來 現指導體制에 이르기 까지 一貫되어 오고 있다.<sup>2)</sup> 換言하면 傳統的으로 소비에트 共產主義는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狀態下에 놓여있는 地域을 選擇하여 革命的 膨脹目的의 實現을 환영한다. 韓國戰爭을 중용한 스탈린의 對北傀 武力支援은 共產革命目標를 達成키 위한 試圖였다. 6·25 戰爭 失敗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始終如一하게 對北傀支援 政策에 格別한 神經을 쓰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革命目標와 直結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한편 國際政治目標라고 함은 外的環境 - 즉 國際政治의 變化動因에 適應하여 自國의 得실을 優先하려는 現實主義的인 目標을 意味한다. 其實 蘇聯은 후르시초프執權 以後 急變하고 있는 國際政治體系下에서 自己中心의 適應論理를 摸索하려는데 급급했다고 볼 수 있겠다.

所謂 平和共存政策은 소비에트國家利益을 위한 現實政策으로 看做되는바, 이 같은 政策類型은 그 適用過程에 있어 共通性이 露出되고 있는바, 그것은 즉 소비에트國家利益에 死活的인 價値로 認定하지 않는限, 蘇聯은 결코 直接的인 武力介入을 통해 革命目標를 達成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겠다. 例컨대 越南戰에 있어 蘇聯은 一般的인 軍事支援에는 積極性을 띠었지만, 美國과의 武力對決과 같은 直接的인 支援關係를 갖지 않았다는 事實은 蘇聯으로서 革命目標 보다 國際政治目標를 先行하고 있었음을 立証해 주고 있다. 말하자면 베트남에 대한 革命支援은 蘇聯의 重要한 責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美國과의 共存關係를 害칠 極端的인 行爲는 結果的으로 蘇聯에게 失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事實을 是認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 같은 越南戰에 있어

서의 蘇聯의 態度로 보아 今後 北傀에 대한 對南革命戰略 支援에서도 蘇聯이 取할 姿勢는 直接介入 아닌 間接支援方式으로 進展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아진다.

要컨대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는 當時의 주어진 條件에 따라 適用上의 比重을 달리하고 있다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例컨대 最近에 있었던 폴투갈 共産黨에 대한 革命支援型은 名實共히 革命目標가 先行된 民族解放鬪爭에 대한 積極的인 支援으로 展開되었지만 結果的으로는 失敗되고 말았다.<sup>3)</sup> 따라서 現實的으로 遂行되고 있는 蘇聯의 對外行爲過程은 前記한바 國際政治目標와 革命目標가 並存된 狀況속에서 進行되고 있다고 봄이 옳은 見解일 것이다. 이와같은 二大目標의 並存論理는, 特히 60年代 後半期 以來 持續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그主된 理由는 소비에트 스스로의 國家利益 때문이다. 말하자면 革命條件이 完熟되지 않은 狀況에서 革命目標를 앞세운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蘇聯 自身이 實感하고 있다는 뜻이다.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도 國際政治目標와 革命目標를 並行시키고 있으며, 向後도 이와같은 前提가 繼續되리라고 보아진다. 그것은 蘇聯으로서 北傀에 대한 支援關係가 名目上으로나 實際面에 있어

서도 「民族解放鬪爭支援」내지는 「民族統一戰線戰略의 支援」으로  
直結되어야 하며 (革命目標의 強調), 한편 이와並行하여 韓半島內  
에서의 새로운 力学關係의 調整作業에서 蘇聯이 主導的인 役割을  
하기 위해서는 餘他 有関國과의 均衡과 견제 作用에 敏感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이다. (國際政治目標의 強調)

따라서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革命目標와 國際政治目標의 相互  
補完 作用속에서 推進되고 있음이 現實이다.

## 2.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基本關心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路線은 傳統的인 南進政策, 平和共存  
原則에 立脚한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改善政策 및 強大國間的 關係  
調整을 優先視하고 있으나 對中共 견제, 包圍政策을 現今도 拋棄  
하고 있지 않다는 三大政策으로 集約시킬 수 있겠다.

첫째, 傳統的인 南進政策이라 함은 帝政러시아 以來 오늘에 이르  
기까지 一貫되어 오고 있는 政策類型으로서 아시아地域內에 不凍港  
을 掌握하여 南進政策을 容易하게 遂行할 수 있게끔 好條件을  
構築한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蘇聯으로서는 어떠한 環境의 變化가  
아시아地域에 초래 되더라도 同政策을 양보 내지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平和共存政策이라 함은 蘇聯外交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 후루시  
시초프 以來 現 蘇聯指導層에 이르기까지 異質的인 社会体制間的  
關係改善을 위한 現實的인 戰略이다. 그러면서도 同共存政策의 底  
意에는 브레즈네프의 表現대로 「平和共存은 共產主義의 最終 勝利  
를 위한 轉換期的인 用語이며, 또한 政策의 하나이며, 同共存政策은  
抑圧者와 被抑圧者, 植民地 支配者와 犠牲者間에는 適用되지 않는다」<sup>5)</sup>  
라는 基本原則이 排除되지 않고 있다.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見解  
에는 現實的으로 平和共存은 어느나라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可能한  
것이지만 後進的인 아시아地域國家와의 共存關係에 있어서는 特別  
民族解放運動이라는 條件이 隨伴된 基礎위에서 共存의 合理性을 追  
求한다는 意味가 內包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蘇聯 共產黨 綱領  
에 規定되고 있는 바와같이 「民族國家는 客觀的으로는 大体로 進  
步的 革命的 및 反帝國主義的인 勢力이며, 世界的, 社會主義와 世界  
的 民族解放運動 사이에는 緊密한 共通의 利益이 存在하고 있음으  
로 民族解放運動의 支援은 國際主義的 責務」<sup>6)</sup> 라고 한 以上 現  
蘇聯指導層의 아시아 民族國家와 民族解放運動과의 提携關係에 대  
한 하나의 重要한 理論的 根拠가 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그러나 現實的인 面에서 볼 때 蘇聯指導層의 民族解放鬪爭에 대한 支援과 平和共存과의 相互關係調整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問題視되고 있는 것은 例컨대 브레즈네프 스스로의 見解대로 「民族解放鬪爭의 支援은 이데올로기面에서의 共存否定과 結付되는 성질의 것이지만 見解의 相異로 인해 반드시 戰爭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7)</sup> 라고 한 以上, 蘇聯이 아시아 地域國家의 民族解放鬪爭 支援을 위해 自國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면서 까지 武力決定을 원치 않는다는 現實的인 論理가 成立되고 있다는 點이다.

例컨대 前記한바 越南戰에 있어서 蘇聯이 越南民族解放支援을 위해 直接的인 武力介入을 斷行하지 못한 일련의 事例로 보아 蘇聯이 提起하고 있는 平和共存과 民族解放鬪爭 支援間에는 相互 모순된 實踐論理가 內包되고 있는 바, 現 蘇聯 指導層의 對아시아 政策上의 딜레마는 이러한 相互 모순 關係를 如何히 調整하느냐가 問題로 되고 있음을 否定할 수는 없다.

이러한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現實適應理論이 브레즈네프의 「原則의 柔軟의 實施」<sup>8)</sup> 로 侵略者에 대해서는 非妥協的임과 同時에 流動的인 國際環境에 適應한다는 現實面에

重点을 두고 있다. 따라서 現今 推進되고 있는 蘇聯 平和共存政  
策의 一環으로서의 對아시아政策에서 重要的 것은 그들의 基本的인  
理論은 社會主義原則의 固守라고 하겠지만 한편 그原則의 柔軟的인  
實施過程에 露呈되고 있는 多樣的 戰略과 戰術의 擴大 傾向이다.  
말하자면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對아시아 政策의 目的은 스탈린時  
代와 같이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直接的인 移植에 대한 緊要性  
보다는 오히려 아시아國家의 특이한 社會構造를 現實的인 狀況으로  
是認하고 이들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接近策을 企圖  
함에 있다. 이것은 現 蘇聯指導層에 依해 強調되고 있는 國利優  
先主義原則에 立脚한 現實主義 政策인바 최근 急激하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의 國際政治秩序라는 狀況속에서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目的과 手段間的 相互作用에 있어 보다 合理的인 接近方法을  
摸索해 보려는 証示라고 하겠다.

세째,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遂行過程에 있어 最惡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存在이다. 中·蘇間의 對立과 競合關係는  
兩國사이에 基本的인 敵對行爲의 修正 또는 調整이 成立되지 않는  
限 相互 충돌을 免키 힘들 것이 現狀況이다.<sup>9)</sup> 其實 蘇聯은 中  
共과의 對立이 극심해 졌던 60年代 初부터 아시아, 特히 東南亞

地域國家와의 關係改善을 활발히 推進시켜 왔던바, 이에 대한 아시아諸國의 受容態度는 比較的 肯定的이었다.

그것은 앞서 指摘하였듯이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蘇聯의 柔軟的 現實政策에 대해 大部分의 아시아國家들은 同調的이었고, 반면 教條主義的이고 好戰的인 中共의 對外政策路線에 대해 그들의 反應은 非友好的이며 非協調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9年 4월에 있었던 9全大會 以後 中共 스스로도 外的環境에 順應하여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改善에의 政策轉換의 緊要性を 是認함에 따라 尙래의 아시아國家들로 부터의 敵對的인 對中共觀을 好意的인 方向으로 돌이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우기 美·日과의 和解政策 試圖로 中共의 位置와 役割은 名實共に 아시아地域內에서의 行動主体로 認定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아시아諸國과의 關係를 同一國家系譜視하고 있는 中共으로서 異質的인 蘇聯의 積極的인 아시아進出을 견제 또는 沮止시키기 위한 多角的인 手段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中共의 對外行爲 變化에 따라 蘇聯의 戰略 亦是 多樣하다. 그 特徵은 多岐한 策略外交를 통한 拠点主義政策을 優先하고 있다는 點이다. 拠点主義政策의 目的은 첫째 50年代 後半

期 以來 本格的으로 推進시켜온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勢力圈을 維持·強化시키려는 것으로서 西方은 버어마, 北方은 日本 및 南方은 印度 등 個別國家와의 二邊條約 締結<sup>10)</sup> 을 통한 積極的인 關係 改善에 있으며, 둘째 아시아國家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中共을 격리시키려 함에 있는바, 蘇聯은 이미 中·印國境紛爭, 越南戰爭에 있어서의 援助政策 및 印度 - 파키스탄 戰爭 등 局地戰爭을 巧妙하게 利用하여 中共의 영향력을 弱화시키려는 手段을 使用해 온 바 있다.

세계 目的은 아시아地域內에서의 蘇聯이 獲得한 열매를 最大限으로 保護, 育成시키기 위하여 아시아國家들의 對蘇觀을 好轉시키려는 데 있다. 蘇聯은 이미 60年代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發展的援助戰略 下에 直接·間接的인 援助를 아시아國家에게 提供하고 있으며, 한편 蘇聯의 對아시아 諸國과의 經濟, 相互貿易 및 文化交流는 時間이 갈수록 增加되고 있다.<sup>11)</sup>

要컨대 拠点主義政策은 全아시아를 對象으로 하는 具體的이고 計劃的인 接近策으로 看做되는 바, 特히 越南戰 以後의 蘇聯의 對아시아 戰略은 極히 多樣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中 代表的인 例가 이른바 아시아諸國에게 호소하고 있는 「集

團安全保障」이다. 同案은 이미 1969年 6月에 있었던 世界共產  
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에 依해 會式的으로 提議된바 있다. 12)

最近의 모스크바放送은 同安保體制案을 「機會가 成熟된 切實한  
課題」 13) 라고 誇張表現하고 있으며, 아시아國家들의 積極的인 呼應  
을 願하고 있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아시아國家들의 同案提議에 대한 反應은 몇몇  
國家를 除外하고는 거의 否定的인 態度表明을 하고 있는 바 그  
主된 理由로는 同安保案의 根本動機와 目的이 真正한 意味에서의  
아시아國家間의 地域的 安全保障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中共을  
견제하기 위함에 있다는 點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蘇聯政治 指導者들은 아시아安保體制야 말로  
아시아諸國을 위한 平和計劃 ( peace program ) 이라고 強調하고  
있으며, 武力不行使, 主權尊重 領土不可侵, 內政不干涉, 經濟協力, 自  
決權尊重, 侵略에 依한 領土併合 禁止,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天然資源 保有의 主權尊重, 社會經濟改革의 權利承認등의 原則을 提  
示하고 있다. 14)

그러나 蘇聯이 提示하고 있는 同案의 底意는 現狀의 固定과  
勢力圈의 安定化와 國境線의 確定을 關切시키려 함에 있다고 보

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말하자면 西方의 現存防衛機構의 解体 내지는 弱화를 통한 蘇聯의 軍事的均衡을 造成시키고, 한편 아시아를 同一國家系譜 地域으로 간주하고 있는 中共의 영향력을 最大限으로 축소시킴으로써 蘇聯의 아시아勢力圈을 擴張시키려는데 속셈이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底意는 特히 越南戰爭 以後 美國의 勢力이 漸次的으로 太平洋 및 아시아地域에서 감퇴됨에 따라 더욱 더 表面化되고 있음이 現實이다.

아시아集團安保의 提議를 名目으로한 蘇聯政府 當局의 움직임은 多樣하다. 최근 表明된 크레믈린指導層의 發言을 보면 「아시아 地域의 永久한 安定을 이룩하기 위해 아시아諸國들이 蘇聯이 構想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機構에 參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蘇聯의 構想이 어떤 特定한 國家를 견제하기 위한 意圖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어떠한 아시아國家와도 提携할 용의가 있다」<sup>15)</sup>는 內容을 再三 強調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關心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同安保案의 適用範圍가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例컨대 蘇聯은 아시아安保體制 構成에 있어 가장 主要한 拠点地域을 印度와 日本에 두고 中間地域으로서 ASEAN 諸國을 選定하고 있는 傾向이 현저하다. 印度와

는 이미 71年 8月 相互友好條約을 체결하였음은 물론 73年 11月 印·蘇頂上會談을 통해 相互國家간의 理解와 協調를 다짐한 多角的인 協定이 체결 되었고, 日本과는 平和條約 체결을 前提로 한 通商·漁業등 相互協力을 다짐하는 次元에로 까지 關係가 進展되고 있으며, 그 一環으로 蘇聯의 安保提議에 同調해 줄 것을 要請한 바 있다. 16)

뿐만아니라 蘇聯은 同案의 擴大適用戰略의 一環으로 73年 5月 12日 台灣에 事前通告하여 蘇聯艦隊가 처음으로 台灣海峽을 示威 通過한 事實이 있었던 바, 그目的은 多分히 政治, 軍事的인 것으로서 美7艦隊가 台灣에서 철수할 경우, 蘇聯艦隊가 台灣海峽의 防衛를 인계, 中共의 侵攻을 沮止하기 위한 國府에 대한 示威이기도 하다. 17)

한편 최근에 蘇聯當局은 政府機關紙를 통해 처음으로 ASPAC에 대한 肯定的인 論評을 하고 있음을 注視되는 바, 同紙에서 「政治体制의 區別없이 모든 아시아國家들을 參加시켜 순수한 經濟的, 文化的인 機構로 轉換하려는 새로운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新風의 하나이다」 18) 라고 한 것은 韓國에게는 물론 餘他 아시아諸國에게 대한 고무적인 論評이라고

하겠다.

要컨대 최근 蘇聯의 아시아政策의 特異動向으로서 表出된 아시아 安保体制 構想은 그性格이 모호하고 具體的인 內容과 實踐計劃이 決如되고 있음이 事實이나 只속까지 蘇聯指導層이나 또는 蘇聯內의 매스콤은 「集團的 基礎에 立脚한 아시아諸國民의 平和와 安全保障」<sup>19)</sup> 이라는 스톱워건을 強調하고 있고, 이를 위한 多岐한 策略 外交는 결코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보여진다.

더우기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이 아시아政策의 一環으로 緣由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고 보는 限 蘇聯의 아시아接近策의 多樣性은 南·北韓關係에도 投影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判斷일 것이다.



### Ⅲ. 소련의 對韓半島態度

最近 잇달아 變化되어가고 있는 南北韓간의 內在的變化 動因에 따른 소련의 態度를 分析함에 있어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소련의 韓半島戰略에 대한 變化趨移의 與否檢討가 先行條件으로 提起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 條件은 韓半島가 地政學上 또는 軍事戰略上 소련의 安全保障과 直結되는 死活的인 問題로 看做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韓半島를 소련政策 決定者들이 地政學上 또는 戰略上 主要地域으로 고려하고 있느냐의 問題이다. 其美 韓國戰爭 以前에 있어서는 소련이 韓國을 그들의 外交政策形成에 있어서 重要な 要因으로 認定해 왔다. 따라서 韓半島는 소련의 安保利益 (Security interest)에 있어 重要的 役割을 해왔었다. 소련은 北韓에 대한 支援關係를 絶對的인 責務로 是認하고 北韓의 親蘇政權을 維持하는데 全力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 特히 스탈린死後에 소련의 態度는 이른바 平和共存路線을 基盤으로한 多樣한 戰略에로 發展되어 갔다. 즉 소련은 北傀의 對南革命戰略에 대한 支援關係를 고려 하고

있으면서도 이 보다 더 主要視한 것은 強大國間의 緊張緩和와 第3世界에 대한 開拓에 보다 관심을 集中케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態度變化는 國際政治目標을 強調해 온 소련의 韓半島, 특히 그 一環으로서의 對北韓政策에도 限界성과 柔軟성이 包含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서 소련의 國家利益上 또는 對外政策上 韓半島의 重要性이 餘他地域에 比해 減少되고 있음을 是認케 된 結果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소련은 恒時 韓半島를 完충지대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地域에 힘의 不均衡狀態가 초래되기를 願치 않고 있음은 事實이다. 이런 觀點에서 소련은 南方三角關係, 즉 美·日·韓國의 對北韓態度에 敏感하다 함은 否定할 수 없다.

두번째 條件은 첫째條件과 관련된 것으로서 '韓半島問題에 대한 소련政策決定者들이 고려하고 있는 對外政策上的 優先順位問題이다. 두말할 必要없이 스탈린時代에 있어서는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支援政策이 對外政策上 第1次的이고 死活的인 것으로 確信해 왔다. 그러나 후루시초프執權 以來 現 蘇聯指導層의 對外政策 形成過程에 있어서의 優先順位 고려문제는 從前과는 달리 現美國際政治狀況에 適應하여 最大의 自己 利益을 獲得保護하려는 傾向이 顯저한 바,

6.25 韓國戰爭의 쓰라린 教訓을 體驗한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은 肅清의 強硬路線을 可能的 限 弛緩하고 보다 柔軟한 政策으로 轉換시키는 것이 소련에게 有利함을 自認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政策下에 蘇聯指導層은 非스탈린化를 強調하고, 同時에 西歐諸國, 特히 美國과의 關係安定化 政策을 優先視하기에 이르렀던 바, 이것은 確實히 蘇聯指導層에 依한 政策 立場의 一大轉換이라고 看做된다. 따라서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對外政策 選定上의 優先順位도 從前에 비해 볼 때 훨씬 低下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判斷일 것이다.

세번째 條件은 中·蘇의 對立狀況下에서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可變性 問題이다. 中·蘇간의 蜜月旅行 時代에 있어서 兩國의 對韓半島政策은 北韓에 대한 積極的인 支援을 통한 赤化統一 政策으로 一貫되었으나, 50年代 後半期 以來 表面화된 中·蘇對立으로 因한 對北韓 영향도는 相互 견제와 相互隔離 作用에로 進展되었으며, 그 結果 北傀内部的 리더십 構造에도 蘇聯派, 中共派 또는 國內派라는 派閥을 낳게 하였다. 따라서 中·蘇對立의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려는 金日成은 自主政策路線을 선택하게 되었다. 1955年 12月 28日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王

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할 데 대하여」란 題目의 연설에서 蘇聯 派와 中共派를 비난하게 된다. 이 演說은 自助, 自立에 대한 北 傀의 概念을 表明한 것으로써 이를 土臺로 1966年 10月 自主 政策路綫을 公式化하여 宣言하였다.

要件대 革命支援關係라는 側面에서 볼 때 中·蘇의 對北韓觀은 同質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지만 外在的動因, 즉 國際環境의 變化趨 移에 따른 國家利益 優先追求의 立場에서 볼 때, 中·蘇·北韓 三 角關係는 一致될 수 없는 不調利의 問題點이 包含되고 있다고 分 析되는 바, 소련의 對北韓態度 變化与否는 中共·北韓關係의 進展狀 況 如何에 따라 事實上 그 歸趨가 決定될 것이다.

앞서 指摘한 세가지 先行條件을 大前提로 소련의 南北韓態度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檢討하고자 하는 南·北韓에 대한 蘇聯態度 分析의 主目的은 南北韓 문제와 관련된 北韓의 立場에 대한 소련의 反應을 分析해 봄으로서 그것이 南·北韓關係에 如何 한 影響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려는데 있다.

韓國戰爭을 통한 武力統一의 失敗 以後 소련은 北韓의 수많은 提案에 대해 말뿐인 支援을 提供할 뿐 어떠한 統一政策을 提示 하지 않았다.

北韓이 行한 最初의 平和提案은 1954年 4月~6月 제네바에서 열린 韓國政治 會議에서 表明되었다. 소련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要求하는 北韓의 모든 提案과 措置를 支持하였으며, 「南韓의 武力解放과 革命鬭爭」을 主張하는 好戰的 聲明에 대해서는 一切 無視하였다. 1954年의 統一方案은 다음을 要求하였다.

즉 南北韓代表로 構成되는 委員會에 의해 諸問題를 解決 할것, 南北韓에서 外軍의 撤収(UN이 아닌) 中立國監視에 의한 總選舉, 그리고 南北韓 共히 軍事力을 10萬으로 減縮할 것 등이다.

1958年, 1960年 및 1963~1964年에 繼續된 北韓의 提案은 「新提案」이라는 公稱에도 不拘하고 같은 內容을 반복할 뿐 이었다. 그러나 1960~68年 사이에 金日成은 여전히 「平和的 統一」을 주장하였지만, 보다 好戰的인 統一方式을 採択하였다.

1961年 9月 第4次 全党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中央委員會 報告에서 金日成은 南韓에서의 美軍駐屯과 美國의 侵略政策에 관해 맹렬히 非難하면서, 南韓에서의 民族解放鬭爭에 의한 統一을 強調하였다. 따라서 南韓에 대한 浸透工作은 더욱 심해졌으며, 南韓에서의 革命鬭爭 口號도 復活되었다. 또한 勞動黨指令의 南韓地下革命黨, 統一革命黨(1964年 創黨)은 그 指導者가 1968年

末, 1969年初에 체포, 冥刑을 받을 때까지, 그活動을 擴大하였다.  
 푸에블로 납치, 美정찰기 추격, 朴大統領 暗殺企圖등 1968 ~ 1969  
 年에 北韓이 行한 一聯의 挑發行爲는 蘇聯의 壓力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1年 蘇聯 - 北韓의 相互援助協定の 論議時,  
 蘇聯指導者는 第二의 韓國戰爭이나 베트남과 같은 大規模 게릴라戰  
 을 위해서 蘇聯은 어떠한 支援도 하지 않을 것을 北韓當局에 分  
 明히 하였다. 21)

要컨대, 南北赤十字 予備會談 發表가 있었던 1971年 8月까지의  
 소련의 對北韓態度는 穩健政策路線에 立脚한 口頭支援에 있었다고  
 集約된다. 이와같은 政策路線은 그後도 一貫되고 있는바, 1971年  
 9月 23日 프라우다紙는 「有益한 接觸」이라는 表題下에 南北韓  
 接觸은 「朝鮮情勢를 正常化시키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23)  
 고 強調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同紙는 平壤放送 報道를 인용하  
 여 「同會談이 民族的 숙망에 기초하여 全体朝鮮人民의 관심사로  
 되는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게 하리라는 것을 期待하고 있다.  
 朝鮮半島에 真正한 平和가 樹立될 것을 願하고 있는 蘇聯사람들과  
 全世界 모든 善良한 사람들도 바로 그런 期待를 가지고 있다」 23)  
 고 言及하고 있음을 본다.

1972年 7月 4日의 南·北韓간에 合意된 共同声明에 대한 모스코바当局의 態度에서 7月 5日字 프라우다紙는 南·北韓간의 会谈結果와 南北韓 共同声明에 대한 朝鮮中共通信社의 자세한 報道를 인용하고 있다. 例컨대 同報道에 있어 니코노프(모스코바放送, 解說委員)의 解說內容은 蘇聯의 公式態度 表明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는 바, 「蘇聯사람들은 美帝國主義者들이 朝鮮의 內事에 대한 간섭을 당장 그만두고 自己軍隊를 南韓으로 부터 撤収시켜야 한다고 한 北韓外務省의 声明에 共感한다」<sup>24)</sup>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朝鮮民族統一問題」는 오직 이 나라 人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蘇聯의 立場이며, 朝鮮의 모든 社會主義 자들의 立場」<sup>25)</sup>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見解와는 달리 第三者格인 한 外國人의 관찰은 극히 興味있고 注視된다. 즉 모스코바駐在 特派員吉岡 日本記者의 「南北의 急速한 接近에 대해 주저하는 蘇聯」이라는 表題下에 쓴 記事에서 그는 모스코바当局은 7·4 共同声明의 南北不戰約束에 대해 全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南北平和統一이 具體적으로 어떻게 進行될 것인가에 대하여 予測 困難하기 때문에 公式

論評을 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는 蘇聯은 南北調節委員會가 設置된다고 하더라도 短期日內에 어떠한 結果를 거두리라고는 期待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그는 蘇聯은 韓半島에서 最初로 資本主義國家와의 結合이 實現될 경우에 따른 對策은 크레믈린의 教科書에도 記述되어 있지 않다고 解釋을 내리고 있다.<sup>26)</sup> 물론 同記事의 內容은 7·4 共同聲明에 대한 蘇聯當局의 公式論評에 根拠를 둔 解説이 아님은 事實이나, 모스크바의 雰圍氣를 감안한 一聯의 蘇聯態度를 分析해 보았다는 點에서 看過해서는 안된다고 고려된다.

한편 南北赤十字 本會談에 대한 蘇聯의 反應도 北韓政權의 立場을 옹호 支持하고 있으나 論評된 內容은 比較的 온건하다. 1972年 8月 31日字 이즈비스차紙는 「會談은 朝鮮半島 情勢를 全盤케 하며 朝鮮人民에 대한 新時代의 政策으로 上정된 切박한 問題들을 解決함에 있어 하나의 進展으로 되고 있다. 이는 朝鮮半島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며, 外勢의 干涉없이 朝鮮人民 自体가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基礎위에서 南北朝鮮統一問題와 自己運命을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sup>27)</sup> 고 論評을 加하고 있다.

여러차례에 걸친 南北調節委員會에 대한 蘇聯의 反應 亦是 基本



的으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 追求라는 面을 강조하고 있는 바, 가  
령 1972年 11月 5日字 프라우다紙에 記載된 內容을 보면  
「同會談을 통하여 南北韓간 긴장상태를 緩和하며, 軍事衝突은 방지  
하고 南北韓간 對外政策에서 合意된 措置들을 취하는 問題도 解決  
해야 할 것이다.<sup>28)</sup> 라고 한 것은 확실히 蘇聯의 立場에서 南北  
對話의 進展을 바라고 있으며, 「南北韓間 外交政策에서 合意된 措  
置」라고 한 것이 具體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分明치  
않지만 南北韓의 對等한 位置에 立脚한 現狀固定原則의 含蓄的인  
表現이라고 解釈된다.

한편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過渡期的이고 잠정적인 措置로서  
宣言한 韓國의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에 對해 이  
를 全面 否定하고 나선 金日成政權은 이에 對應키 爲해 같은  
날자인 6月 23日에 所謂 高麗聯邦制<sup>29)</sup> 라는 統一方案을 提示  
한 바 있다. 同方案은 이미 60年代에 北韓이 宣傳的 效果를  
노리기 爲한 目的에서 내용은 平和提案과 大同小異한 內容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對한 蘇聯의 反應도 從前과 다를바 없  
음을 알 수 있다. 6月 27日字 모스크바放送은 「同提案이 朝  
鮮半島와 極東에서 긴장상태를 緩和하며 平和的 民主主義的 기초

위에서 朝鮮을 統一할때 둘러진 朝鮮政府의 또하나의 主要한 發言으로 되어 있다」<sup>30)</sup> 고 言及하고 있을 뿐 北韓이 提案한 方案에 대한 內容의 論評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앞서 言及된 放送 內容은 蘇聯駐在 北韓大使인 권희경의 要請으로 만난 코시긴 蘇聯 首相의 發言內容이었다는 點에는 極히 儀禮的인 形式節次에 지나지 않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코시긴 首相은 권희경大使와의 對談에서 北韓이 反對하고 있는 6·23 韓國의 平和統一外交政策에 대해서는 一切의 言及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이로니컬하기도 하다.

要컨대 南北韓 接觸에 대한 蘇聯의 基本態度는 「蘇聯사람들은 南北間의 軍事的 對決을 終熄시키며 平和的 民主主義的 土台위에서 나라의 民族的統一을 위한 條件을 保障하려는 朝鮮人民의 努力에 共感하고 있다」<sup>31)</sup> 는 브레즈네프書記長의 말대로 南北韓 雙方間에 刺戟的인 表現을 可能한 限 피하고 現狀態의 進行을 肯定하려는 傾向이 현저함을 突感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蘇聯의 基本姿勢는 지난 28次 UN總會에서의 그로미코 蘇聯外相의 演說內容에도 反映되고 있는바, 그는 「아시아大陸에서 일어나는 肯定的인 事突들은 韓半島情勢의 새로운 建設的인 措置도

包涵하고 있다」<sup>32)</sup>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73年 10월에 있었던 브레즈네프, 田中頂上會談에서도 日·蘇兩國은 東南亞 긴장완화 努力에 滿足을 表示함과 同時에 南北韓 對話를 환영하고 있다.<sup>33)</sup> 이와같은 一聯의 緊張緩和 政策에 立脚한 蘇聯의 立場은 또한 지난 28次 UN總會 政治委員會에서 채택된 決議案 通過<sup>34)</sup>에 있어서도 別다른 異議없이 關係國家들과 步調를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以上과 같이 檢討한 南北韓關係에 대한 蘇聯의 態度를 감안할 때 大体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流動的인 事實들을 推理 또는 展望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첫째, 南北接觸의 變化動因의 主된 契機가 美·蘇·美·中共間의 協商을 前提로 한 和解政策의 現實化에 있는 限 行動主体의 一員인 蘇聯의 政治的 調整役割에도 制限性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蘇聯의 南北韓問題 関与에 있어서 表面上으로는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主張하고 있으나 內容的으로는 餘他 有関國間의 相互 견제속에서 和解와 緊張緩和라는 基本線의 維持에 보다 力點을 두고 있는 바, 이것은 南北韓接觸의 動機와 目的에 대해 肯定的인 態度를 示唆해 주고 있다고 본다.

둘째, 韓半島를 強大國間의 力学均衡關係의 調整地인 緩衝地帶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蘇聯의 立場이기 때문에 蘇聯은 韓半島에 紛爭이 일어나는 것을 願치 않고 있으며, 可能한 限 現狀固定을 바라고 있는 바, 이경우 蘇聯에 의한 北韓의 南朝鮮革命 支援의 可能性은 排除되리라고 보지만 이와같은 外在的作用은 南北韓의 統一을 沮害시키는 要因이 된다고 看做된다.

세째, 平和共存原則을 바탕으로 한 美·蘇의 超強 核保有國은 緊張緩和의 趨勢에 따라 軍事力의 下向調整作業에 積極性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本來의 政治的 目的을 위해 創設된 軍事力을 制限 내지는 減縮시켜 世界의 긴장도를 弱화시키기 위한 政治的 調整에 있어서의 美·蘇位置의 重要性 強調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美·蘇 兩國이 韓半島의 緊張解消를 위한 調整役割은 南北對話 推進의 뒷받침이 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南北關係의 先行條件인 戰爭없는 平和의 論理를 合理化시킴에 있어 美·蘇에 依한 平和破壞 抑止作用은 아직도 常存하고 있다고 보는 이른바 革命과 戰爭을 포기케 하는데 큰 効果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 南北韓의 接觸에 대한 蘇聯의 態度가 現時點에서 보아 肯定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判斷인바, 그것은 南北韓을 圍繞한

美・蘇・中・日 4 強國의 力学關係調整을 위한 相互間의 견제作用으로 보나 또는 南・北韓 自体의 平和的接觸이 결코 蘇聯에게 不利한 与件造成으로 進展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蘇聯의 對半島態度는 韓國의 對蘇接近 可能性에 대한 假說 검토에로 까지 發展될 수 있다고 본다.

#### IV. 蘇聯의 對韓態度推理와 對蘇接近上的 問題點과 展望

蘇聯政府當局의 公式的인 對韓態度 表明이 없는 現時點에서 蘇聯의 反應을 評價한다는 것은 時期當早라고, 하겠지만 앞서 指摘한 바와같이 7·4 共同聲明을 前後하여 表出되기 시작한 蘇聯의 南北韓 關係에 대한 論評과 이와 관련된 몇가지의 事件들은 종전과는 다른 次元에서의 韓·蘇關係를 吟味해 볼만한 契機가 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말하자면 蘇聯은 事實上 南北對話를 통한 接觸을 肯定的인 姿勢로 받아 드리고 있으며, 特히 韓國이 내 놓은 6·23 宣言에 대해서도 否定的인 態度表明을 하지 않고 있다는 點들을 감안 할때 蘇聯의 對韓態度 推理는 결코 無根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其美 韓國과 蘇聯關係는 71年을 起點으로 相互接觸의 可能性을 示唆해 줄 만한 events로 發展되어 오고 있다. 具體적으로 1971年 한해 동안에 있었던 韓·蘇間의 關係진전 상황을 보면 南·北韓赤十字 予備會談 開催에 대해 蘇聯의 反應은 大體的으로 환영의 뜻을 表하고 있다. 南·北韓간에 合意를 본 7·4 共同聲明 發表된 72年은 蘇聯의 對韓態度에 보다 柔軟性을 더게 한 해로서

특징 지을 수 있는바, 크레브린當局으로 하여금 南·北韓의 平和  
指向的인 對話의 進展에 耳目을 集中시킨 結果를 초래케 했다.

蘇聯의 매스 미디어는 平壤報道를 引用하고는 있지만 全般的인 雰  
圍氣가 南·北韓이 合意한 共同声明의 趣旨와 內容에 대해 肯定的  
인 姿勢로 一貫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狀況變化는  
蘇聯의 韓國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同時에 適用될 수 있는 流動  
的인 측면을 고려케 해준다.

비록 72年 5월에 있었던 美·蘇頂上會談時에 韓半島問題에 대  
한 具體的인 言及은 없었지만 兩國指導者들은 南·北韓對話 進展의  
肯定的인 立場을 暗暗裡에 表明하고 있음은 또한 蘇聯의 對韓態度  
를 측정할 수 있는 契機가 된다고 思料된다.

73年은 韓國과 蘇聯間 關係改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로  
看做될 수 있다고 보는바, 소련사람들로 하여금 韓國人을 意識하  
고 있다는 징후가 突出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例컨대 73  
年 5月에는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던 第15次 國際演劇協會 會議  
에 韓國演劇人이 蘇聯當局으로 부터 正式入國 許可를 받아 同會議  
에 참석한 事實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同年 8月에는 Universiad 夏季大會에 韓國選手團

46名이 초청되었으며, 韓國의 스포츠를 蘇聯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示威하였다. 물론 Universiad 大會에 韓國人이 참석할 수 있었다는 事實 그自体만으로서 蘇聯의 對韓國觀이 好轉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判斷임에는 틀림없겠다. 그러나看過할 수 없는 點은 北韓이 韓國을 초청했다는 理由로 同大會에 參加를 보이코트 하였음에도 不拘하고<sup>35)</sup> 蘇聯當局이 韓國을 餘他國家들과 同等한 資格으로 取扱해 주었다는 事實이다. 이같은 一聯의 突變的인 事件의 底意에는 蘇聯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게 마련이다. 가령 1980 年에 予定되고 있는 올림픽을 모스크바에 유치시키고자 한 意圖, 또는 소련의 積極적인 平和共存路線에 立脚한 善隣友好關係를 誇示함으로써 世界輿論을 自國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돌려 보자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 어쨌든 이러한 소련의 底意 推理는 결국 韓國의 對蘇關係改善을 沮害시키는 要因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蘇聯의 對韓態度를 보다 好意的으로 轉換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契機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蘇聯이 北韓을 恒時 意識하고 있으면서도 對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餘他 有關係國의 態度를 注視하면서 伸縮性 있는 処事를 斷行하고 있다는 事實은 또한 今後 對蘇接近의 可能性을 推理할 수 있



는 素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例컨대 蘇聯은 南北韓問題에 對한 中共의 態度에 對해 特히 敏感함이 事實이다. 최근 中共指導層의 公式發言에 對한 蘇聯側의 反應도 否定的인 아님을 發見할 수 있다고 본다.

77年 10月 8日字 AP合同報道에 依하면 中共副首相 鄧小平은 韓半島의 平和統一方案으로 南北間의 直接對話를 提議한바 있다고 한다. 同通信은 鄧이 이날 日本 陸上自衛隊 第9師團長을 지낸 「미스오카, 겐지로」가 이끄는 6名의 日本自衛隊 退役將星들과 北京의 人民大會堂에서 約1時間 동안 만난 자리에서 韓半島問題에 言及 中共은 韓半島統一問題에 對한 金日成의 平和統一政策을 繼續 支持할 것이나 南北韓間의 直接的인 對話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提議했다고 報道했다.<sup>36)</sup> 鄧은 또 北韓 金日成이 「好戰的인 것 같지는 않으며 戰爭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中共이 北傀對內問題에 介入할 意思가 없다고 밝혔다고 이通信은 傳하고 있다.<sup>37)</sup> 北韓은 只今까지 韓國의 南北韓對話 再開 要求를 外面한채 對美協商을 提議해 왔는데 鄧이 이같은 韓半島關係 發言은 北韓側 立場과 相反되는 것으로 注目을 끌고 있다. 其實 이와같은 中共의 南北韓 對話 推進에 對해 蘇聯은 이미 72年

以來 一貫되어 오고 있음을 감안 할때, 中共의 韓半島에 대한 直接的인 關心 表示는 蘇聯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今後의 對韓半島態度에도 그리 큰 變化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推理는 다음과 같은 事例로 多少나마 그輪廓이 드러난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73年을 起點으로 蘇聯政府當局이 韓國人의 蘇聯入國을 許容하고 있기 때문이다. 具體적으로 지난 13日字 外信報道에 依하면 蘇聯 그루리아共和國首都 크빌리市에서 열리는 유네스코環境 教育會議에 參席하는 韓國代表團이 12日 파리를 경유 蘇聯에 入國했다는 것이다.<sup>38)</sup> 同會議에 參席한 우리代表團은 우리나라 政府를 代表하는 外交官과 其他 代表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事實上 政府代表가 參席한 것으로 看做될 수 있겠다.

한편 蘇聯의 對韓半島 關心은 前記한 바, 軍事戰略的인 面에 보다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最近 蘇聯의 太平洋 및 極東艦隊의 示威는 加增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外信報道에 依하면 지난 10月 14日 蘇聯艦艇 5隻이 對馬島 北東쪽 50km 海上에서 給油中인 것을 日本海上 自衛隊가 發見했다고 한다. 同報道에 따르면 蘇聯艦艇은 구축함 1隻, 호위함 2隻, T58掃海艦 1隻, 그리고 給油艦 1隻으로 構成되 있다고 한다. 그런데 蘇聯艦艇이 出

現한 地域은 大韓海峽 近方이라는 點에서 今後 蘇聯 艦艇의 大韓海峽 接近이 빈번해질 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要컨대 이와같은 事例들이 韓國과 蘇聯 사이에 發生되고 있다는 事實은 넓은 意味에서 볼때 和解와 共存·互惠原則에 바탕을 두고 있는 國際環境의 實質的인 變化의 歸趨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韓國의 立場에서 보다 肯定的이고 希望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그것은 韓國의 對蘇接近에의 動機·條件 및 政策 檢討를 위한 試案作成의 必要性을 提示해 주기도 한다.

6·23 宣言 以來 韓國이 中共이나 蘇聯과 최소한의 關係를 改善시킬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것은 大體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大前提를 現實的인 當局論理로 肯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前提는 韓半島에 直接·間接的으로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蘇·中共·日本의 새로운 力学關係가 相互均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느 一方國도 单独的인 主導權을 行使할 수 없음을 是認하고 있다는 점이 具體化되어 가고 있음이다. 즉 새로운 世界秩序의 時代를 맞아 4大 太平洋勢力을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에 最大 關心을 돌리고 있는바, 72年 2月 27日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은 각기 南·北韓의 緊張緩和를 통한 平和指向的인 對話

의 길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同年 5월에 있는 모스크바共同  
声明에서도 美·蘇兩國은 特定國을 指稱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際的  
緊張緩和의 유발을 防止하기 위해 最大의 努力을 傾注한다는 原則  
에 相互合意를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日·中共 또는 日·蘇間의  
頂上會談에서도 一方的인 強大國에 依한 秩序破壞行爲를 許容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물론 韓半島에 대한 4大強國의 利害關  
係는 條件과 狀況變化에 따라 각기 相異하다고 보겠지만 최소한  
緊張을 抑止하고 平和指向的인 姿勢定立의 必然性을 言及하고 있다  
는 點에서는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두번째 前提는 中·蘇間의 對立에서 연유되는 狀況變化는 時期와  
條件에 따라 南·北韓과의 接近 可能性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라  
는 假定이다. 물론 短期的인 眼目에서 中共이나 蘇聯은 同盟國家  
인 北韓을 刺戟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서서히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神經을 씬으로써 韓半島의 事態를 現狀固定化에로 이끌어 나갈 것  
이 予想된다. 이 경우 中·蘇는 共히 南·北韓을 同等한 主權  
國家로서 認定해야 함을 強力히 主張하게 될 것임은 의심할 餘地  
가 없겠다.

뿐만아니라 中共이나 蘇聯은 韓國의 位置와 役割에 대한 獨自性

을 最大限으로 伸張시키는 基礎위에서 對韓接近上의 問題點을 考慮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前提는 韓國 스스로가 東·西獨의 모델처럼 長期的으로는 平和統一의 目標을 肯定하면서도 감정적으로 北韓과의 互惠原則에 立脚하여 對內·外的인 行爲選定에서 同等한 立場을 認定한다는 現實政策에 대해 中共이나 蘇聯이 결코 否定的인 態度表明을 하지 않으리라는 現實性의 수궁이다. 其實 이 前提는 北韓 스스로가 現時點에서 받아드리지 않고 있으며, 한편 中·蘇의 立場 亦是 주저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그 實現 可能性의 問題는 多分히 4大有關國의 중용 事項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네번째 前提는 4大強國의 力学關係調整에 따라 南·北韓의 對外關係 改善推進을 장려할 수 있는 그들간의 理解와 妥協의 可能性이 濃厚해지고 있다는 點이다. 이경우, 韓國은 中·蘇와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美·日, 特히 美國의 對 中共 및 對蘇관계에 敏感한 態度를 表示해야 함은 물론 美國이나 日本을 통해 間接적으로 中共이나 蘇聯과의 關係改善의 길을 摸索해 본다는 政策的인 配慮가 隨伴되어야 한다. 其實 카터新行政府의 出現과 함께 抬頭한 駐韓 美地上軍의 撤収問題와 관련하여 美國의 對아시아政策, 그 一環으로

서의 對韓政策의 再吟味 過程에 있어 美國은 이미 韓半島에 대한 蘇·中共의 態度 測定을 위한 基礎作業을 進行시키고 있다. 아직 決定的인 意思表示를 주저하고 있지만 美國의 韓國政策에 대한 中·蘇의 姿勢는 流動的이며 다만 大局的인 見地에서 韓半島內의 不安要因을 相互 除去하겠다는데 合意를 보고 있지만 具體적으로 軍事的不均衡이 韓半島內에 초래될 경우 中共이나 蘇聯이 北韓의 好戰性에 대해 如何한 態도와 方法으로 臨할 것이라는 問題에는 한마디의 言及도 없음이 現實이다.

그러므로 韓國的인 立場에서 多少나마 希望的인 政治的 醜慮라고 함은 南·北韓間의 對話가 보다 順調로와 지고, 美·中·蘇·日關係의 相互調整에 依한 美·日의 對北韓承認 및 中·蘇의 對韓國承認이라는 狀況變化에로 까지 發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以上 提起한 몇가지의 前提條件에 立脚하여 韓國의 對蘇關係 改善을 위한 試案作成의 必然성과 이에 따른 問題點들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其美 7·4 共同聲明을 前後해서 韓國政府는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適應하기 위한 政策的인 代案의 一環으로 國利優先主義에 立脚한 行動目的選定의 多樣性을 對外에 表明한 바 있다. 이것은 敵意가 없는 나라라면 어떠한 國家와도 正常的인 關係를 樹

立하겠다는 意思와 行動이 一致된 多角的인 外交政策을 意味한다. 具體적으로 「非敵性共產國家와 修交할 용의가 있다」<sup>39)</sup> 고 한 金鍾泌 前國務總理의 國會証言이나 「蘇·中共을 비롯한 非敵性共產國家와 關係改善은 물론 通商關係까지 擴大하겠다」<sup>40)</sup> 고 한 金溶植 前外務長官의 發言은 물론 「韓國政府는 모든 나라와 關係改善을 맺기를 願하고 있으며 蘇聯이 提案한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內容이 보다 詳細히 알려지면 이를 검토할 것」<sup>41)</sup> 이라고 한 尹錫憲 前外務次官의 發言등은 韓國의 現實的인 對外政策의 세신을 위한 基礎作業段階를 示唆해 주고 있으며, 비록 蘇聯의 公式的인 政府態度가 表示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장차 蘇聯의 肯定的인 反應을 期待할 수 있을지도 모를 試案의 提起라는 面에서 환영할만한 發言이었다고 思料된다.

前記한 바와같이 韓國政府의 對蘇接近試圖를 表明한 公式的인 發言內容을 集約, 具體化시킨 것이 6·23 宣言인바, 우리政府는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 門戶開放을 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体制을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했으며, 韓國의 外交政策이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다」<sup>42)</sup> 고 宣言한 것을 契機로 對共產圈政策을 더욱 積極적으로 推進시키

고 있다.

예컨대 韓政府는 民間人들로 하여금 非公式 經路를 통해 蘇聯의 門을 두드리게 됨을 격려해 주었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排球코치講習會에 北韓·몽고·越盟의 코치들까지 초청하는가 하면 國際鍼術大會에 共產國家의 學者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各種 學術大會에 蘇聯人의 誘致 및 韓國과 蘇聯內에 있는 研究所와의 各種 資料交換등 實質的으로 6·23 宣言을 實踐化하는 段階에로 發展되고 있는 感을 질게하고 있다. 民間主導的인 非政治的 레벨에 있어서의 外交를 적극적으로 支援하고 있는 韓國政府의 姿勢는 現段階에 있어서 소련의 淸아시아 政策路綫과 一致하는 面에서 蘇聯으로 하여금 이를 外面할 수 없겠음 하기 위한 一聯의 바람직한 処事라고 考慮된다.

그러므로 韓國이 推進하고 있는 多目的的인 對共產圈接近政策은 確實히 蘇聯이나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意志的으로 試圖해 보기 위한 韓國政府의 公式的인 態度表明과 一致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앞서 檢討한 바와같이 蘇聯이 表面的으로는 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을 위한 아시아人的 團合을 호소<sup>43)</sup> 하고 있지만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對해 이렇다할 蘇聯政府當局의 公式的인 態度表明이 없는 限,



韓國政府의 對蘇接近 示唆는 한낱 一方的인 提言이나 또는 試圖에 不過함을 排除할 수 없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一方的인 對蘇接近 示唆를 雙方이 相通할 수 있게 하기 위한 試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代案과 그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도 無意味하지 않은 것이다.

그 첫째 代案은 韓半島를 둘러싼 有隣國의 力學關係에서 緣由되는 狀況變化의 포착과 關聯되는 것으로서 政治, 外交的인 政策配慮이다. 즉 70年代 以後 南·北韓關係는 對話를 前提로 한 相互 均衡狀態의 維持에로 進展되고 있다. 이같은 力學的인 均衡關係는 蘇·中共·北韓을 이은 北方三角關係와 美·日·韓國을 包含하는 南方三角關係의 相互調整이라는 狀況속에서 維持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北方三角과 南方三角은 相互對立關係에 있으면서도 아이로니칼하게도 한편으로 敵對속에서의 協調 霧困氣가 隨伴되고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이같은 韓半島의 內在的條件은 時期와 諸條件에 따라 韓國이 中共이나 蘇聯에게 接近을 試圖할 수 있는 契機를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경우 韓國이 對中共·對蘇接近 試圖에 있어 北韓을 고립시키기 위한 政治的目的과 결부시키려는 따위의 政策的

配慮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 試圖는 北韓의 對美·對日關係 改善과 並行되는 次元에서만 實現 可能性이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美·日을 통해서 北韓을 宗용함은 물론 한편 蘇聯이나 中共의 對韓態度 改善에도 變化를 가져 올 수 있겠끔 多樣한 外交活動을 推進시켜야 할 것이다. 이 代案은 美·蘇·中共·日 四大有關國의 南·北韓에 대한 交叉承認 問題와도 直結되고 있다고 보는바, 韓國은 時代變遷의 當爲的인 受容態度에 敏感해야 하며, 特히 交叉承認 過程에 있어서도 能動的인 態度表明을 통해 國際輿論化할 수 있는 確固한 姿勢定立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代案은 經濟的 내지는 物質的인 諸誘因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現實的으로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國家利益의 一環으로서의 經濟的諸條件이 무엇인지를 把握하여 그에 따른 適應策을 마련해야 함을 意味한다. 其實 蘇聯은 Autarky 經濟體制의 自己倒壞 地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 즉 「코메콘」을 통한 經濟發展은 時間이 갈수록 不振해지고 있으며, 農業生産의 低下는 물론 數많은 資源開發에 있어 技術, 資本 및 人的資源의 不足으로 因한 國內經濟의 落後性을 自認하고 있는 것이 蘇聯이다. 그러므로 蘇

聯은 最近 美國이나 日本으로 부터 技術 및 資本導入의 必要性을 是認하고 있으며, 特히 日本과는 資源開發問題를 둘러싸고 오랜 時日동안 政府나 또는 專門家 水準의 具體的인 協議過程을 거치고 있다.

現在 日·蘇간에는 아직도 確定된 計劃에 依해 相互國家간의 經濟協力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只今까지 合意를 본 內容들이 具體化되리라고 보는 것이 이方面에 대한 專門家들의 見解이다. 즉 今後 日·蘇關係가 正常的인 軌道에서 시베리아 共同開發 등이 本格化 될때 日·蘇간의 合意에 依해 不足人力動員의 充員을 韓國政府와의 相議下에 解決시킬 수 있다는 推理도 成立될 수 있다고 본다. 特히 이같은 假定은 韓國이 所有하고 있는 技術勞動者의 動員關係가 容易하다는 點도 重要하다고 본다. 反面 北韓은 國家統制計劃下에서의 勞動力 動員은 極히 制限되고 있음이 現實인바, 시베리아開發에 投入될 不足 技術勞動者의 充員은 確實히 韓國이 優勢하다고 함은 日·蘇兩國 共히 認定하게 되리라고 보아진다.

이경우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이 可能해질 수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代案은 蘇聯의 對아시아進出의 積極性에서 緣由되는 機會 포착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最近 蘇聯은 아시아地域에서의 영향력 擴大를 위해 多様な 外交活動을 펴고 있다. 그類型은 拠点포착을 위한 雙務協定の 締結과, 特히 多邊的인 協調體制 구축을 위한 아시아 集團安保體制로 区分할 수 있다.

前者의 例는 特히 印度亞大陸을 中心으로 한 拠点포착을 蘇聯으로서는 自國의 死活的인 利害關係와 直結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最近 印度와의 關係改善을 위해 必死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1973年末의 印·蘇頂上會談에서 브레즈네프 書記長이 모든 아시아國家와 提携할 것을 強調하고 있음은 蘇聯의 對아시아態度에 變化를 초래케 할 수 있다는 可能性마저 示唆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1969年 以來 一貫되어오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構想에 대해 비록 아시아國家들의 肯定的인 受容態度가 表面化되고 있지는 않지만,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同提案에 대한 아시아個別國家들의 反應은 比較的 流動的이며, 그受諾 與否問題는 今後 蘇聯의 진지한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流動的인 狀況을 감안해서 韓國政府도 아시아諸國과의 積

극적인 關係改善을 통해 對蘇接近의 지름길을 摸索해 볼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네번째 代案은 非政治的인 次元에서 直接 또는 間接去來를 트기 위한 질 의 摸索이다. 非政治的인 接近이란 主로 經濟 또는 文化 交流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門戶를 實質的으로 開放하기 위한 多方面的인 努力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蘇聯社會는 폐쇄된 統制社會라고는 하지만 國際的인 條件의 變化에 適應하여 自國의 利得을 考慮하고 있는 傾向이 濃厚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各種交流를 통한 相互理解關係도 尙前과는 다른 次元에서 고려되어 져야 한다.

예컨대 韓國人의 意圖的인 蘇聯入國을 통한 對話의 契機마련이나 또는 韓國에서 開催되는 國際會議에 蘇聯人을 초청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장려해 주어야 하는 問題는 우리政府가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와같은 機會가 빈번해지게 되면 蘇聯人의 對韓觀도 多少나마 變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以上 檢討된 試案은 蘇·北韓이 계속 同盟關係에 있는 限 短時日內에 實現된다는 것은 期待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함은 當然하겠다. 그러므로 對蘇接近 可能條件의 成熟時期는 南北韓對話가

順調로히 進行되고, 特히 韓半島問題에 直接·間接的인 관련을 갖고 있는 美·蘇·日·中共關係가 南·北韓의 存在價值를 同時에 認定, 나아가서는 承認 段階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要컨대 韓國의 對蘇接近에 대한 假說檢討는 韓半島를 둘러싼 外在的 動因, 즉 國際環境의 變化趨移로 보아, 妥當히 試圖되어져야 할 妥當的인 課題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妥當論은 現實的으로 보아 假定을 위한 試案에 不過함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은 아직도 中共이나 蘇聯은 우리와 對峙下의 競爭關係에 있는, 北韓과의 三角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關係는 自然히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도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北韓과 日本 같은 關係가 妥當間 아무리 好轉된다 하더라도 韓·日關係에는 미치지 못할 것과 마찬가지로 論理이다. 즉 國家間的 具體的인 業務問題 處理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나 體制의 相異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形成된 國家關係와 國際體系 및 勢力關係는 北韓 日本關係에서 보는 바와같이 韓國과 蘇聯關係에도 明白한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이미 門戶開放을 통한 平和統一外交政策의 原則을

國際社會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同原則을 具體적으로 實現시키기 위한 多岐한 戰略과 戰術을 構想・計劃하고 있음이 事實이다.

어려운 高地는 하루에 올라갈 수 없다는 教訓을 切感하면서 內陸의 高地 占領을 위한 作業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點을 감안해서 韓國이 對蘇接近外交를 試圖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點에 特別히 留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政策的代案 作成過程에 있어서의 問題點 解決과도 直結되고 있다는 點을 부언해 둔다.

첫째로 對共產國家 接觸은 客觀性和 現實的인 狀況을 무엇보다도 重要視해야 한다는 點이다. 오늘의 共產國家는 각기 独自の인 生存圈의 維持와 強化에 力點을 두고 있다. 예컨대 東歐諸國이 東西交流를 통한 自己發展을 優先視하고 있음은 既知의 事實이다. 이같은 現實性은 蘇聯이라고 해서 例外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角度에서 볼 때 北方三角關係를 同質的인 것으로 把握해서는 안된다. 蘇聯과 北韓을 別個의 存在로 상정시켜 이들의 特殊性을 예리하게 分析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適應策을 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未來의 理想로기 爲主의 單一線的인 政策構想이 아니라, 現實을 바탕으로 한 國家利益的 次元에서의 伸縮性

있는 戰略의 構想과 具體的인 實施가 段階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둘째로 對蘇接近을 위한 具體的인 戰略과 戰術에 있어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明確한 線을 그을 수 있는 상세한 協商테이블 위의 “메뉴”가 決定되어야 한다. 물론 現在의 狀況속에서 蘇聯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으며, 한편 蘇聯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러나 政策作成者의 頭腦活動이 交渉을 위한 報償의 理論으로 가지 미쳐질 때에 비로서 이렇다할 結果가 나타난다는 것은 當然하다고 본다. 異質的인 國家間에 關係改善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相對方國家가 必要로 하는 것을 재빨리 把握하여 그에 맞는 処方을 내려야 한다. 前記한바 蘇聯의 경우 韓國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素地가 全無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바, 우리는 外交的인 創意力을 総動員해서 相互國家가 理解할 수 있고, 協調할 수 있는 最大의 媒介物을 發掘하는 作業이 緊要하다고 生覺된다.

세째로 敵對속에서의 協商은 恒時 既存同盟體制의 오늘과 내일의 狀況과 그에 따른 餘波條件을 重要視하면서 徐徐히 推進시켜야 하겠다.



其美 韓國은 動的인 國際政治의 狀況變化에 順應하여, 能動的인 対応策을 實現시켜 보리라고 努力하고 있다. 이같은 行爲는 이미 南方三角關係의 主軸國인 美·日이 共히 是認하고 있음은 물론 어느 면에서는 장려해 주고 있는 實情이다.

오늘날 韓半島問題가 有關係의 相互作用속에서 調整되고 있고, 今後에도 이같은 情조가 繼어갈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볼 때, 韓國이 取할 態度는 물론 우리의 主体的인 適應이 優先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못지않게 重要한 것은 同盟關係가 密接한 關聯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韓國이 最近에 이르러 對蘇關係 改善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도 實은 우리의 同盟關係의 變質 過程에서 緣由되는 것이며, 同時에 對蘇關係 調節의 可能性과 機會 포착도 同盟關係의 能動的 活動에서 發見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對蘇接近을 위한 戰略的인 試案作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同盟關係와 對共產黨, 特히 그 一環으로서의 對蘇간의 相互作用 過程을 科學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現實的이고, 体系的인 方案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同方案은 計劃的이고, 集中的이며, 持續性이 있어야 함을 格別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駐韓美地上軍의 撤収問題와 함께 表面化된 韓半島의 全体的인 霧困氣는 새로운 力学關係의 均衡問題에로 가득차 있다. 越南戰爭以後 아시아地域에 있어 영향력을 強化하고 있는 蘇聯은 內的으로 는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를 환영하고 있으나 最少限, 表面的인 面에 서는 韓半島의 現狀固定 및 緊張緩和 現象을 바람직한 現實로 보고 있는 것 같다.

要件대 蘇聯의 韓半島政策 내지는 態度推理에 관한 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動因이 우리들에게 含蓄性 있는 關心事로 提起되고 있다.

그 첫째 動因은 緊張緩和와 現狀維持에 바탕을 두고 있는 蘇聯의 現實主義政策이 雙務 또는 多边的인 契約形式을 통해 새로운 關係改善에로 進展되고 있는 바, 이것은 平和와 安定을 追求하고 있는 아시아國家 들에게 적지 않는 影響을 주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類型은 비록 餘他 아시아國家들과는 주어진 條件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對韓半島政策과도 直結되고 있음이 現實的인 狀況變化라고 生覺된다. 그것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는 美·日·中共과 함께 蘇聯도 共히 願하고 있다는 基本 態度가 表明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動因은, 비록 現時点에서 蘇聯政府当局의 韓半島에 대한 態度가 모호하고, 政策上에 뚜렷한 輪廓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只今까지 發表된 蘇聯政府內 共産党기관지 등을 통해서 볼 때 크레믈린当局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進展」 또는 「韓半島에 建設的인 要素」가 있다고 함을 言及하고 있으며, 그 一環으로 南·北對話의 지속을 強調하고 있음을 본다.

세번째 動因은, 中共과의 심각한 對立下에서 蘇聯은 北韓이 中共 一辺倒로 轉向될 우려를 고려하여 多角的인 援助를 提供하고는 있지만 그 先行條件으로서 韓半島 現狀維持와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促進을 隨伴케 하고 있는 징후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南北韓에 對한 蘇聯의 穩健政策路線을 意味하는 바, 北韓의 一方的인 現狀打破나 緊張高潮를 惹起시킬 可能性이 있는 行動에 對해 蘇聯으로서의 환영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理解되기도 한다.

네번째 動因은 柔軟性있는 蘇聯의 韓半島에 대한 關心事는 韓國의 對蘇關係改善을 爲한 再吟味를 示唆케 한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蘇聯을 對韓關係를 쉽게 맺지 않을 것이다. 그

理由は 蘇聯이 韓國과의 關係維持에서 얻은 利 보다는 北韓을 刺戟하므로서 오는 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蘇聯은 南北韓의 同等位置 認定이라는 條件下에 徐徐히 韓國과도 關係를 갖게 되리라는 展望을 全적으로 排除할 수는 없겠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의 動因을 감안할 때, 蘇聯의 最近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基本的으로는 現狀維持의 姿勢定立에로 發展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蘇聯의 態度는 美·日·中共과의 勢力關係 調整이라는 前提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그 一環으로서의 蘇聯의 韓半島政策, 또는 韓·聯關係의 改善展望도 多分히 有隣國의 相互作用에 따라 보다 뚜렷한 輪廓이 露出되리라는 點을 再三 強調해 둔다.

註

- 1) 한국日報, 1977. 11.10.
- 2) Alvin Z, Rubinstein,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0) p.341.
- 3) 李命植, "브레즈네프体制의 集中과 再編成," 國際問題, 1976. 4, pp.27-28.
- 4) 1977年 5月 現在 蘇聯이 구축하고 있는 太平洋艦隊는 잠수함 1百隻 (이中 40隻은 核추진) 主要水上戰艦 71隻 (射程距離 3백마일, 1천 300마일등의 高성核 미사일 장착)
- 5) 第23次 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書記長의 演說內容, ソビエト年報, (東京 : 大藏省印刷局), 1969, p.68.
- 6) Cited in Ibid.
- 7) Ibid
- 8) 25次 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報告, "Soviet Union," FBIS-SOV-76-38, Wednesday 25 February 1976, Vol III. No. 38 Supp 16 参照.
- 9) 아시아에 있어서의 中·蘇對立과 競合關係 分析에 關하여,

李命植, 「中・蘇의 对아시아進出에 있어서의 对立 및 競合要  
因分析」 1972年度 文敎部學術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報告書  
参照.

10) 最近 蘇聯이 아시아個別國家와 締結한 代表的인 雙務條約  
1971年 8月 9日 全文 12件로된 蘇・印度間의 友好條約을  
들 수 있다.

11) Elizabeth K. Valkencer, "New Trends in Soviet Economic  
Relations with the Third World", World Politics, Vol. XXII  
(No.3), April, 1970, pp. 415-432; and see, Karl Günzel,  
"Communist Strategy in the Third World", Aussen Politik,  
Vol. 22, Feb., 1971, pp.201-202.

12) Pravda, June 18, 1969

13) Moscow Radio, July 22, 1973.

14) FBIS, op. cit. 参照

15) Brezhnev speech, pravda, August 16, 1973.

16) Moscow News, No. 41 (1188), October 13, 1973.

17) 「코리아評論」 (Korea Review), No. 144, August 1973, p.29.

18) Izvestia, June 21, 1972

19) 世界週報 1973, 5, 8. P.32.

- 20) 1954 年의 提案에 대한 論議는 다음을 참조,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California 1972), pp.543 - 544.
- 21) Jane P. Shapiro, "Soviet Policy Toward North and the Korean Unification Problem,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1973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Jung Hotel, New Orlands, Louisiana, September 4-8, pp. 6-7.
- 22) Pravda, September 23, 1971.
- 23) Ibid.
- 24) Pravda, July 5, 1972.
- 25) Ibid.
- 26) 毎日新聞 1972, 8. 16.
- 27) Izvestia, August 31, 1972.
- 28) Pravda, November 5, 1972.
- 29) Izvestia, June 23, 1973.
- 30) Moscow Radio, June 27, 1973
- 31) Pravda, June 9, 1973.
- 32) Izvestia, September 26, 1973.
- 33) Moscow News, October 13, 1973.

- 34) 1973年11月23日 UN 政治委員會決議案은 ① 7.4 共同聲明精神을 再確認하고, ② 南·北交流를 促進하고, ③ UNCURK 를 즉각 解体한 다는 內容으로서 同決議案을 滿場一致로 通過시켰음. 朝鮮日報, 1973, 11. 23
- 35) 北韓은 同大會를 보이코트한 理由로 “蘇聯의 好意를 Two-Korea 政策으로 惡用하는 南韓을 反對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 36) 中央日報, 1977. 10. 8.
- 37) Ibid.
- 38) 朝鮮日報, 1977. 10. 13
- 39) 朝鮮日報, 1971. 8. 6.
- 40) 朝鮮日報, 1972. 7. 8.과 1973. 11. 29.
- 41) 朝鮮日報, 1972. 7. 18.
- 42) 朝鮮日報, 1973. 6. 23.
- 43) 브레즈네프·간디 頂上會談 Communique, 中央日報, 1973. 12. 1.